

<http://dx.doi.org/10.17703/JCCT.2023.9.1.485>

JCCT 2023-1-59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구윤정*

Yoon-Jung Koo*

요약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하는 4년제 간호대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공만족도는 3.78점, 진로정체감은 2.67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3.11점, 진로준비행동은 2.46점이었으며, 진로준비행동은 전공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진로준비행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체계적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며, 그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주요어 : 간호대학생,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lationship among majo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Methods:** 210 nursing students participated.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IBM SPSS Statistics 21.0. **Results:** Mean score of majo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3.78, 2.67, 3.11 and 2.46 points. There wa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mong major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onclusion:** Based on the finding of this study, to improv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it needs to a systemic education system that improve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ey words : Nurs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cademic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정회원, 위덕대학교 간호학과 (단독저자)

*접수일: 2022년 12월 31일, 수정완료일: 2023년 1월 5일

게재확정일: 2023년 1월 9일

Received: December 31, 2022 / Revised: January 5, 2023

Accepted: January 9, 2023

*Corresponding Author: yjkooh@uu.ac.kr

Dept. of Nursing, Uiduk University, Korea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년들에게 대학생활 시기는 경제적 독립과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대학생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1].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중·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과도한 입시경쟁을 겪으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 자신의 직업은 무엇인지, 그 직업이 자신의 적성이나 가치관과 부합하는지, 또는 본인이 생각하는 직업관은 어떤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이 되어서도 자신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력으로 진로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구상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진로발달 지체현상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발견되고 있다[2-4].

숙명여대 학생 생활상담소의 2007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개인 상담을 받고 싶은 내용으로 진로문제를 선택한 학생이 39.6%로 가장 많았다. 또한 62.7%의 학생이 가장 받고 싶은 심리검사로 진로탐색 및 흥미검사를 선택해 적성 및 진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위와 같은 문제는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사회로 나가는 대학생들에게 진로결정과 그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직업에 대한 본인의 능력과 흥미, 목표가 정확하고 안정된 상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을 진로정체감이라고 한다. 1980년 Holland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진로정체감은 환경적으로 물리칠 수 없는 모호함에 직면했을 때 본인의 적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이 깊다고 한다. 따라서 진로정체감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여 그를 바탕으로 자신과 가장 맞는 직업을 따져보아 합리적인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바람직한 미래설계를 토대로 향후의 자신의 모습과 현재 자신을 연결짓는 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Holland [6]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정체감은 진로성숙도와 높은 상관을 보이며, 특히 진로를 선택할 때 드러나는 결정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진로정체감은 직업적·개인적 적응을 보다 광범위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7]. 또한 이러한 진로정체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될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장기간동안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진로에 대하여 준비하는 행동으로 김봉환, 김계현[8]에 의해 국내에 처음 도입된 개념이다. 진로준비행동은 진로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진로활동과 진로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준비하고 개발하는 행동이다.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8-10]를 보면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은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업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직접 실행해 나가는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이다[11].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확신이 높아지며, 학습태도나 교과 선호도 등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목표 실현을 위해 적합한 학습전략을 개발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준비행동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12-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전공만족도에 대해 살펴보면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임상실습 시에 생기는 스트레스가 진로결정과 준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17]. 그러나 본인의 적성과 흥미보다는 학과 취업률이나 성적에 따라 전공을 선택한 경우, 전공만족도는 낮아지고 향후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과 관련성이 있는 변인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확인해봄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정도를 파악한다.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4)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와 진로준비행동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경북에 소재한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 2학년 2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본수 산정은 G*Power 3.1.9.7을 이용해 .25의 상관계수, 양측검정, 1종오류 .05, 검정력 .95의 조건 하에 202명의 연구참여자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본 연구에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장됨과 동시에 자료가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됨을 설명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216부 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1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3.1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미국 Illinois 대학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평가 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를 수정, 보완하여 김계현과 하혜숙[19]이 작성한 34개 학과 만족도 중에서 이동재[20]가 전공만족과 관련된 18문항을 추출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공학과 학문에 대한 일반적 관심에 따른 '일반만족' 6문항,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따른 '인식만족' 6문항,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 3문항, 교과 내용에 대한 '교과만족' 3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게 측정될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 이었다.

3.2 진로정체감

Holland, Daiger와 Power[21]가 개발한 진로상황감사(MVS, My Vocational Situation)의 하위척도인 정체감 척도 18문항을 권윤희[22]가 한국의 간호대학생들에 맞게 14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권윤희[22]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0$ 이었다.

3.3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박인영, 김아영[23]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이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서 과제난이도 10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10문항, 자신감 8문항의 세 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아영과 박인영[23]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6$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7$ 이었다.

3.4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 김계현[8]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16문항을 임은미와 이명숙[24]이 진로에 관한 교내 진로 관련 상담센터의 활성화와 진로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의 활성화를 고려하여 2문항을 추가하여 4점 척도로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정보수집활동 6문항, 도구구비활동 5문항, 목표달성활동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임은미와 이명숙[2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8$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2$ 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였다. 연구대상 대학의 해당 학년, 학반을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총 221부가 배부되었고, 총 216부가 회수되었으며,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타과 학생이 작성한 설문지를 제외한 21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에게는 연구목적과 익명성을 유지할 것, 연구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음을 설명, 명시하였고 이후 서면으로 연구에 대한 참여 동의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이해와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5. 자료분석

-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으로 Scheffe's test를 이용하였다.
-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6. 윤리적 고려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목적 및 연구절차를 설명하고 승인을 받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며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장됨과 자료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됨을 구두와 서면을 통해 알렸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은 여자 168명(80.0%), 남자 42명(20.0%)이었으며, 1학년이 98명(46.7%), 2학년이 112명(53.3%)이었다. 성적분포는 2.5미만 4명(1.9%), 2.5 이상 3.0 미만 49명(23.3%), 3.0 이상 3.5 미만 85명(40.5%), 3.5 이상 4.0 미만 54명(25.7%), 4.0 이상 18명(8.6%)이었다. 진로준비 시 정보를 얻는 곳은 인터넷 및 취업 포털사이트가 130명(61.9%)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나 선배 등 주변 지인이 57명(27.1%),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 19명(9.0%), 서적이거나 잡지 4명(1.9%)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1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42(20.0)
	Female	168(80.0)
Grade	Freshman	98(46.7)
	Sophomore	112(53.3)
Academic Achievement	Less than 2.5	4(1.9)
	2.5 or more and less than 3.0	49(23.3)
	3.0 or more and less than 3.5	85(40.5)
	3.5 or more and less than 4.0	54(25.7)
	4.0 or higher	18(8.6)
How to get career information	Internet/Portal site	130(61.9)
	Books or Magazines	4(1.9)
	Acquaintances(friend or seniors)	57(27.1)
	Organizations wish to work	19(9.0)

2.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정도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Table 2).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3.78±0.56점이었었다. 진로정체감은 2.67±0.44,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3.11±0.42, 진로준비행동은 2.46±0.47으로 나타났다.

표 2.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정도

Table 2. Mean Score for Majo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N=210)

Variables	Items	Mean±SD
Major Satisfaction	18	3.78±0.56
Career Identity	14	2.67±0.44
Academic Self-efficacy	28	3.11±0.42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8	2.46±0.47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3).

전공만족도는 진로준비 시 정보를 얻는 곳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t=2.86, p=.038), 성별, 학년 및 성적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진로정체감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t=2.31, p=.021), 1학년이 2학년보다 진로정체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진로준비 시 정보를 얻는 곳에 따라 유의한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Table 3. Differences of Majo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10)

Characteristics	Categories	Majo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cademic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Gender	Male	3.69±.70	-1.17	.240	2.71±.48	0.61	.542	3.25±.53	1.93	.058	2.55±.46	1.42	.155
	Female	3.81±.52			2.66±.43			3.08±.39			2.44±.47		
Grade	Freshman	3.77±.61	-0.26	.791	2.74±.45	2.31	.021	3.09±.42	-0.69	.487	2.41±.41	-1.52	.129
	Sophomore	3.79±.51			2.60±.42			3.13±.43			2.51±.52		
Academic Achievement	Less than 2.5	3.75±.80	0.38	.820	2.83±.79	0.35	.842	3.32±.42	1.03	.392	2.50±.43	0.16	.958
	2.5 or more and less than 3.0	3.74±.62			2.70±.44			3.05±.37			2.50±.41		
	3.0 or more and less than 3.5	3.78±.59			2.65±.43			3.10±.43			2.43±.51		
	3.5 or more and less than 4.0	3.78±.45			2.64±.39			3.13±.42			2.46±.50		
	4.0 or higher	3.93±.51			2.73±.53			3.25±.52			2.48±.37		
How to get career information	Internet/Portal site	3.81±.48	2.86 a, b, c <d	.038	2.66±.43	5.34	.001 a, b, c <d	3.11±.42	0.97	.408	2.46±.47	0.12	.947
	Books or Magazines	3.47±.86			2.32±.55			3.05±.06			2.33±.50		
	Acquaintances (friend or seniors)	3.67±.66			2.59±.37			3.06±.41			2.48±.51		
	Organizations wish to work	4.06±.63			3.00±.54			3.25±.51			2.46±.38		

차이가 있었는데($t=5.34, p=.001$). 인터넷/취업 포털 사이트, 서적이나 잡지, 친구나 선배 등 주변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는 대상자보다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는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성적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은 일반적 특성인 성별, 학년, 성적 및 진로준비 시 정보를 얻는 곳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r=.360, p<.001$), 학업적 자기효능감($r=.424, p<.001$), 진로준비행동($r=.183, p<.05$)이 증가하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r=.317, p<.001$)이 증가하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진로준비행동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은 증가하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166, p<.05$) 보였다(Table 4).

Table 4.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210)

Variables	Majo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cademic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jor Satisfaction	1			
Career Identity	.360(.000**)	1		
Academic Self-efficacy	.424(.000**)	.317(.000**)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83(.008*)	-.019(.786)	.166(.016*)	1

* $p<.05$, ** $p<.01$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1, 2학년 210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상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라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위한 진로준비 행동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전공에 스스로 만족하는 학생이 더 적극적으로 간호직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고[25], 결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진로준비행동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문학선, 김양균[26]의 연구에서 교수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관계적인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향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수와 학생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진로준비 행동에서 교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장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의 취업정보 제공과 진로지도 등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적극적인 진로준비 활동을 격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r=.360, p<.001$), 학업적 자기효능감($r=.424, p<.001$), 진로준비행동($r=.183, p=.008$)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양영옥, 이선옥[27]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로 보아 자신의 전공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전공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고 집중하게 하며 그로 인해 학습에 충실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진로준비행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은 4점 만점에 2.67점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에게 측정한 정영주[28]의 연구에서 보고된 2.79점보다 다소 낮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정영주[28]의 연구에서는 3,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29] 1학년 입학시부터 뚜렷한 진로정체감을 정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년별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진로정체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r=.317, p<.001$)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진로준비행동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 결과는 김지연[30]의 연구에서 진로정체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해 바르게 숙지하게 되고 이는 자기 조절적 기제와 학습에 보이는 확신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3.11점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양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Taylor와 Reyes의 연구[31]와 일치하였다. 자신에게 주어진 학업 과제를 원하는 수준만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이 변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진로준비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입학시부터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능력과 자기조절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이 더 높은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보였다. 좀 더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체계적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겠으며,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 전공만족도는 3.78점, 진로정체감은 2.67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3.11점, 진로준비행동은 2.46점이었다. 전공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은 진로를 준비할 때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는 대상자가 전공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와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병원 및 취업기관과 연계한 진로계획과 진로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공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 진로준비행동 향상을 위하여 간호학 전공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차이를 토대로 산학 연계 진로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제한한다.

References

- [1] M.B. Cheon, and J.G. Lee, "A Study on the Factors of Job Seeking Stress for Graduated in Korean: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elf-Efficacy," *Korean Corporation Management Review*, Vol. 20, No. 6, pp. 191-214, Dec 2013.
- [2] Y.R. Yoon, "The Study on the Career Recognition of The University Students," *Education and Culture Research*, Vol. 13, No. 1, pp. 123-168, 2007.
- [3] E. Lim, J.Y. Lee, and H.H. Yun, "Developing a career development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KRIVET*, report No. 2004-8, 2004.
- [4] K.M. Chang,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Level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Their Adjustment to University,"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6, No. 1, pp. 185-196, 2005.
- [5] Y.H. Nam, "Analysis of Basic Data on Freshman in 2007," *Research Review*, Vol. 30, pp. 1-40, 2007.
- [6] J.L. Holland,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2nd, ed., Englewood: Cliff. NJ, 1985.
- [7] S.K. Lee, "Korean College Students' Vocational Identity: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Demographic and Career-related Variable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19, No. 1, pp. 141-153, June 2006.
- [8] B.H. Kim, and K.H. Kim, "Development and Two Dimensional Typology of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9, No. 1, pp. 311-333, 1997.
- [9] M.A. Jeon, "A Study A Stud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in University Student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Aug 2006.
- [10] J.Y. Yoon, "The Effect of a Career Decision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 Level and Decision Making Styles," *Kei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c 1999.
- [11]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4, pp. 191-215, 1977.
- [12] A. Bandura, and D.H. Schunk,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1, pp. 586-598, 1981.
- [13] G.H. Lee, and J.Y.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Motivation, Course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College Students,"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 17, No. 4 pp. 33-57, Nov 2014.
- [14] S.J. Lee, "The Relationship of Academic Self-efficacy, Task Value, Achievement Goal, Academic Efforts and Cognitive Strategies to English Academic Achievement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10, No. 4, pp. 103-124, 2012.
- [15] D.H. Schunk, "Effect of Effort Attributional Feedback on Children's Perceived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74, No. 4, pp. 548-556, 1982.
- [16] S.Y. Cho, and S.S. Lee, "Effect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n the Korean Adult College Students' Educational Attainment,"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19, No. 1, pp. 127-140, June 2006.
- [17] I.O. Moon, and G.W. Lee,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6, No.1, pp. 83-91, June 2010. DOI : 10.5977/JKASNE.2010.16.1.083
- [18] M.H. Jeong, and M.A. Sh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2, No.2, pp. 170-177. Dec 2006.
- [19] K.H. Kim, and H.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 No. 1, pp. 7-20, Dec 2000.
- [20] D.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June 2004.
- [21] D.P. Holland, "My vocational situation," *Consulting*

- Psychologists Press, Vol. 24, pp. 404-464. 1980.
- [22]Y.H. Kwon, and C.N. Kim, "Effects of a Ready Planned Self 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Vol. 13, No. 2, pp. 216-229, 2002.
- [23]A.Y. Kim, and I.Y. Park,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39, No. 1, pp. 95-123, Jan 2001.
- [24]E.M. Lim, and M.S. Lee, "Relationship of Caree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ents Guidance*, Vol. 1, pp. 101-113, 2003.
- [25]J.W. Lee, N.Y. Lee, and Y.S. Eo, "Path Analysis of Major Satisfaction, Clinical Compet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1, pp. 311-320. 2018. DOI : 10.5762/KAIS.2018.19.1.311
- [26]H.S. Moon, and Y.K. Kim, "A Study on the Effects of Career Stress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10, No. 3. pp. 91-119, Sep. 2020. DOI : 10.35273/jec.2020.10.3.005
- [27]Y.O. Yang, and S.O. Lee, "The 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on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4, No. 2, pp. 979-989, April 2012.
- [28]Y.J. Jeong, "Impact of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Typ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 38, No. 6, pp. 1709-1720, Dec 2021. DOI : 10.12925/jkocs.2021.38.6.1709
- [29]J.A. Kim, J, S. Kang, and K.S. Seo, "A Convergence Comparison of the Stress, Majo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nd Colleg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College Admission process and Grad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2, pp. 99-112, Feb 2017. <https://doi.org/10.15207/JKCS.2017.8.2.099>
- [30]J.Y.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areer Identity, Learning Strategies,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Daej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 [31]H. Taylor, and H. Reyes' "Self Efficacy and Resilience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Vol. 9, No. 1, pp. 1-13, 2012.